

AUTHOR 이형기

TITLE 에큐메니칼 운동에 나타난 교회의 목적에
비추어 본 칼빈의 직제론

IN 교회와 신학

vol.38 (Fall, 1999):36-54

에큐메니칼 운동에 나타난 교회의 목적에 비추어 본 칼빈의 직제론

이형기 | 교수 · 역사신학

머리말

세계적으로 개혁신교회의 직제는 칼빈의 직제론에 영향입은 바가 크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라고 하는 개혁신교회의 4중직이 확정된 것은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에서였으니 말이다. 중세 교회의 계층질서적 성직체제와는 달리, “장로”, 집사” 그리고 “교사”가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으로 승격되었고, 특히 “장로”가 목사와 더불어 치리기구를 구성하여 교회의 치리와 권정을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직제론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개혁신교회의 직제전통이 루터의 만인제사장직론을 크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과연 오늘의 세계상황에서, 우리 개혁신교회가 루터의 만인제사장직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는 맥락에서 교회의 사도적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복음전도와 missio Dei, 그리고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과 같은 교회의 존재이유 혹은 교회의 목적을 소홀이하지는 않았는지? 따라서 개혁신교회의 직제론이 교회 본질론 안에 속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칼빈의 직제론을 살핀 다음에, 교회의 본질(esse ecclesiae)과 직제의 관계, 칼빈의 직제

론에 비추어 본 한국장로교회의 직제론, 한국장로교에 있어서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이상적인 관계, <2000년대를 향한 교단발전 장기 계획>(1989년 제 74회 총회 때 채택)이 제시하는 5가지 미래사회의 특징에 대응하는, 만인제사장직론에 입각한 직제발굴, 에큐메니칼 운동과 개혁전통의 직제론, 및 교회의 존재이유와 존재목적에 따른 교회의 직제론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1. 칼빈의 직제에 관련된 저서들에서 그의 직제론의 변천은 어떠한가?

칼빈은 <기독교강요>(1536년 8월, 초판)와 <제네바 신앙고백서>(1536년 11월)에서는 사도들의 말씀과 성례전 집례를 이어받은 ‘목사직’과 ‘집사직’에 대해서만 논한다. ‘장로교 직제론’(presbyterianism)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두 번째 문서에서, 칼빈은 ‘말씀’을 교역하는 목사가 동일한 ‘말씀’을 따라 교인들을 돌보고 감독할 것을 주장한다. 마 18장에 입각한 ‘출교’를 논하면서 중세기와는 달리 치리와 권정을 ‘교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나, 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그 어떤 치리와 권정 기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칼빈의 이같은 장로제도(presbyterianism)의 씨앗이 루터보다 교회의 성화를 더 강조하는 맥락에서 싹트고 있다.

칼빈은 제1차 제네바 종교개혁을 위한 <The Articles on the Organization>(1537)에서 비로소 ‘어떤 생활이 방정하고 모범된 평신도들’의 감독권을 내세운다. 아마도 마 18장의 ‘교회’가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평신도들’로 이해된 것 같다. 칼빈은 여기에서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서 선출될 ‘어떤 평신도들’을 언급하면서, 중세의 치리와 권정 기구와는 달리 평신도와 목사로 구성된 어떤 치리와 권정 기구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이 ‘어떤 평신도들’을 결코 ‘장로들’이라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아직도 ‘장로직’을 성서적 직분(scriptural office)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어떤 평신도들'을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장로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칼빈은 역사적, 교회적 필요에 따라, '장로직'을 발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직분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는 오이코람파디우스와 마틴 부처의 직제론에 영향을 받은, 슈트라스부르크 체류 기간 이후인 1541년의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에 와서 확정된다. 그런데 칼빈은 이 4직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말할 뿐, 아직 성서적 근거들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 물론, 칼빈이 목사직과 집사직에 관하여는 초판 기독교강요에서부터 말하고 있다. 칼빈은 여기에서 목사가 장로의 직책은 공유하나, 장로는 어디까지나 목사의 직분과 구별되는, 치리와 권징에 관한 직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칼빈은 목사의 선출에 있어서는 목사가 주도권을, 장로의 선출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협의회적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들'이 국가의 공직자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상황적인 것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집사직이 'diakonia'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섬김에서 행 6장으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칼빈이 이 '집사직'을 제네바 시(市)전체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종판 <기독교강요>(1559)는 '교회'를 '은혜의 외적인 수단'으로 보아 교회의 직분들을 통한 교회의 교역을 외적인 수단으로 보기는 하지만, 교회의 본질로부터 나왔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bene esse ecclesiae' (더 좋은 교회본질)로 보는 것으로 주장될 수 있다.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이 복음을 통한 성령 역사에 의한 구원 이외에 예배, 기독교적인 삶 및 직제에 있어서까지 성서적 증거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이 최종판에 이르기까지의 칼빈의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칼빈은 4직분에 대한 성서

적 근거들을 확실히 제시함으로써, 이 4직분이 성서적 직제(scriptural office)임을 양보하지 않게 되었다. 끝으로 칼빈은 '협의회적 특성'(collegiality)과 키프리안의 'primus inter pares' (동등한 자들 가운데 으뜸인 자) 원리에 입각하여 당회장, 노회장 및 총회장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교분리 원칙을 계속 주장한다.

<제네바 교회의 직제>(1561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이 치리와 권징에 관한 한 아직도 완전한 국교분리의 원칙의 꿈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들의 목사에 대한 권징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로들의 평신도에 대한 권징도 강조되고 있는 바, 칼빈은 이같은 맥락에서 당회와 노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교사직'에 대한 넓은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 '집사직'의 대(對) 제네바 사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을 수용하면서도 '특수교역직'(the special ministry)으로서 '장로교 직제'(presbyterianism)를 제시한 칼빈과 장로교 전통들은 그렇다고 재세례파교회의 직제론처럼 개교회주의로 나가지 않았고, 각급 치리기구들의 유기적인 관계와 이 치리기구들에서의 장로들의 협의회적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다. 칼빈과 장로교 전통들은 치리와 권징을 결코 감독 한 사람이나 개교회의 목사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따라서 장로교는 직제론에 있어서는 침례교회나 회중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와 구별된다. 우리는 우측으로는 감독 교회들(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성공회 등)을, 그리고 좌측으로는 회중 중심의 개교회주의 교파들(침례교나 회중교회 등)을 두고, 그 중도노선을 걷고 있다. 우리는 양쪽 모두하고 직제론 대화에 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기존의 장로교적 직제를 유지하면서도 루터의 만인 제사장에 입각한 평신도 직제발굴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칼빈과 장로교 전통의 직제는 '교회의 본질' (esse ecclesiae),

'교회의 표지' (notae ecclesiae) 및 '교회의 본질에서 나왔고 교회의 본질을 위한 것' (bene esse ecclesiae)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신교적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는 루터의 공헌이 크다. 오늘날 세계 교회는 감독체제와 장로교체제, 그리고 개교회주의적 회중교회주의 등의 직제문제 때문에 교회일치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아가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여성안수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바, 우선 직제가 교회의 본질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루터(특히 1526년 이전까지의 루터)의 주장은 직제들의 장벽을 넘어선 에큐메니칼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교회의 본질(esse)은 '복음'에 있고, 직제는 '복음'에 대한 섬김(ministerium verbi Dei)을 위해서(bene esse=well being=직제가 본질에 첨가되어 더 좋다는 의미)있기 때문이다. 만인제사장직이든 특수교역직이든 모두 말씀의 봉사자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복음')의 몸인 교회의 가시적 표지(標識)를 복음설교와, 복음의 진수를 매개시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성례전(세례와 성만찬) 집례로 보았다. 루터와 칼빈은 직제론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본질론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론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직제론으로 나갔으나, 모든 직제론에 앞서 만인제사장론을 먼저 펼쳤다. 우리가 아는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때나 지금이나 사도적 승계에 입각한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매개되는 계층질서적 성직체제를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 보지만 말이다.

칼빈 역시 교회를 이같은 복음의 은혜를 매개시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일으키는 외적인 은총의 수단으로 보았으니, 교회의 모든 직제들이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교역과 직제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로 인도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가능케하는 은혜의 수단

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회의 교역은 이것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와 칼빈은 모두 만인제사장직론을 중요시 여겼다. 하지만 칼빈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직론에 머물지 않고, '에베, 기독교적 삶 및 직제' 까지도 'sola Scriptura' 원칙을 따른다는 생각으로 그의 4직분론을 신약성서에 근거시킨 것이다. 칼빈의 이같은 직제론은 교회의 본질에서 나왔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있다(bene esse ecclesiae).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의 가시적 표현인 성례전의 집례를 맡은 목사직, 이 동일한 말씀에 따라 교회의 삶을 돌보는 장로직, 이 동일한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교사직 및 동일한 말씀을 따라 섬기는 집사직은 모두 '말씀'으로부터 나왔고, 말씀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루터는 '만인제사장직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1526년 이후 감독체제를 수용하고, 지역별 국가 교회로 나간 이유는 칼빈만큼 '직제' 문제에 있어서까지 철저히 신약성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칼빈이 루터보다 교회의 표지론에서 인간의 반응을 더 강조하였는데,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스코트랜드 신앙고백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치리와 권징'을 교회의 제3의 표지로 봄으로써, 기독교적 삶 혹은 성화를 위한 차원으로서 직제에 해당하는 '장로직'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장로교 전통들은 이 '제3의 표지' 까지도 신약성서에 근거시켰다. 칼빈은 대체로 루터를 따라 교회의 2가지 표지를 교회의 본질적 표지로 보았으나, 이들 장로교 전통들은 제3의 표지까지 교회의 본질적 표지로 가산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교회의 본질적 표지를 교회의 본질보다 높이고, 절대화시키는 동안, 우리 장로교회는 율법주의적 경향을 갖게 됨은 물론, 타교파들의 직제들과 에큐메니칼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제3의 표지'를 절대화시키는 한, 더더욱 그럴 것이다. '권징'이 현대 장로교회들에서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3의 표지', 특히 '권징'을 그렇게 강조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 장로교회는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정의 및 창조질서의 보전에 관련된 기독교적 윤리생활을 강조해야 하겠다.

3. 한국 장로교회의 직제론을 칼빈의 직제론에 조명해보면 어떠한가?

우리 한국장로교는 우선 칼빈의 직제론이 역사적으로 발전되었고,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조건지워졌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면서, 이 칼빈의 직제론이 성서와 교부(특히, 이그나티우스의 삼중직과 키프리아의 'primus inter pares')에 빛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칼빈은 슈트라스부르크 체류 중, 오이코람파두스와 마틴 부처의 직제론에 크게 영향받아, 1541년부터 4중직을 언급했고, '장로교제도' (presbyterianism)를 제시했다. 그리고 당회와 총회 같은 상회도 거의 칼빈의 끝 작품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장로교제도'의 성서적 근거와 역사적 조건지워짐을 아울러 생각하고, 특히 '장로'와 '집사'와 '교사' 같은 평신도의 교역직의 역할이 중세 교회의 교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장로교의 헌법은 루터의 저서들과 칼빈의 기독교강요 초판이 말하는 만인제사장직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평신도들의 보다 폭 넓은 교역직 개발에 힘써 올 수 없었고, 평신도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부장적인¹⁾ 목사와 장로 중심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평신도의 교회와 사회참여에 있어서 매우 부족함이 많다. 미국 장로교(PCUSA)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한국 장로교는 하나님 나라와 missio Dei를 위한 '교회의 일반 교역', 전통적인 말로 하면, 만인제사장직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평신도들이 교역참여에 거의 무관심하고, 교역자들과 평신도들

1) 참고: Byong-Suh Kim, "The Understanding Of Eldership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in The Ministry of the Elders in the Reformed Church, ed. by Lukas Vischer(Berne, 1992). 본 저서는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가부장 제도'로 보고, 이것이 장로직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아울러 한 것으로 본다.

의 끈이 깊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아마도 칼빈 자신이 '만인제사장론'을 대체로 그의 <기독교강요>(1536) 초판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칼빈이 매우 중요시하는 목사의 '말씀설교'와 '성례전 집행' 직능이 사도들의 그것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목사의 이 두 가지 직분이 '교회의 본질' (esse ecclesiae)에서 왔고, 4중직은 모두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bene esse ecclesiae)을 알아야 한다. 즉, 모든 교회의 교역과 교역직은 말씀 봉사(ministerium Verbi Dei)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칼빈은 '비상직' (사도들, 전도자들, 예언자들)과 '일상직' (목사, 장로, 집사, 교사)으로 나눈데 반하여,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항존직' (장로, 집사, 권사)과 '임시직' (전도사, 서리집사)으로 나누는 바, 우리는 칼빈의 4중직에서 '교사직'을 소홀히 하고, 칼빈에게 없었던 '전도사직'을 유급전임직으로 한다.

한국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의 관례를 따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 동일한 장로를,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다른 하나를 치리장로로 불렀으나, 오늘날 한국장로교회에서 그 누구도 '목사'를 장로라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 '장로'는 전적으로 '치리장로'를 의미한다. 이 치리장로들은 모든 장로교 전통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급 치리 및 권징 기구들에 목사와 더불어 참여한다. 역시 미국 장로교처럼 우리 한국 장로교는 국교분립 원칙을 따르는 장로교 전통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영향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지침서>는 장로교 역사상 '교사직'을 가장 강조한데 반하여,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선교역사의 영향하에 '교사직'보다는 '전도사직'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성숙하기보다는 복음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에 주력

해 온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권사직은 여성안수 허락 이후 제고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칼빈과 미국 장로교처럼 '집사직'도 교회내적인 봉사를 넘어서서 대(對) 사회적 봉사로 확장되어야 하겠다. '집사직'은 이 땅 위에 성육신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전생을 하나님께의 교역(the ministry of the triune God)을 위해서 힘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회'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총회 총대 수가 너무 많아 주어진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정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 전통들이 '장로'와 '집사'의 한시적 임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스코틀랜드와 우리 한국 장로교회만이 예외적으로 평생직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의 한시적 임기와 장로의 안수례의 의미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끝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세계 보편교회에 대한 의식과 에큐메니칼 운동에의 참여의식이 매우 약하다.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들 뿐만 아니라 직제와 각급 치리 기구들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4.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대체로 3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목사를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 '하나님의 사자'로 보면서 축복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절대권위의 소유자로 보는 경우인바, 이 경우는 루터적 만인제사장설이 아니라 차라리 구약적이요, 가톨릭 '성직론'에 가깝다. 두 번째 유형은 목사는 회사의 전무 정도에 불과하고 몇몇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실권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목회자의 특수 위치와 특수 사명까지 위협한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참여를 강조한 나머지 민중 신학적 평신도주의를 지향

하는 경우인 바, 이는 종교개혁 당시의 어떤 좌경화 그룹처럼 모든 기성 교직체제를 거부하는 분리주의를 지향한다.

오늘 우리에게 바람직한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뉴델리와 읍살라 그리고 제2바티칸에서 처럼 평신도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도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Text가 지향하는 안수받은 교역자의 특수 위치와 특수 사명을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BEM Text가 주장하는 교회의 사도성, 사도적 전승, 사도적 계승의 의미에 유의하면서, 감독제나 평신도주의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5.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이상적인 관계는?

우리는 장로교 전통들 가운데 이 4직분이 평등함을 강조하는 전통에 유의해야 한다. 이 4직분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등거리에 있다. 이 4직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한다(ministerium Verbi Dei). 모든 세례(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메시아 직임과 관련이 있듯이)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수례 받은 특수교역자에 종사하기 전에 이미 '만인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등한 신분을 가지고, '교회의 일반적 교역직' (the general ministry of the Church)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문제는 목사가 장로 위에, 장로가 집사와 교사 위에, 그리고 집사와 교사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장로단이 목사 위에 군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칼빈과 장로교 전통의 4직분은 결코 하향식 위계질서가 아니다. 말씀과 세례전 집례를 맡은 목사직, 이 동일한 말씀을 따라 치리와 권징에 임하는 장로직, 이 말씀의 본성을 따라 봉사에 힘쓰는 집사직,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 발굴될 그 어떤 평신도 직분이라도 이같은 원칙을 결코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목사, 장로, 집사가 받는 안수례의 의미는 목사가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 설교하고, 장로 역시 이 사도적 말씀에 따라 치리와 권징에

힘쓰고, 집사도 이 말씀의 요구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인수를 받지 않는 '교사'도 이 사도적 전승(복음, 성서 및 복음과 성서에 근거한 신학)을 수호하고, 변호하며,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 역시 '사도적'이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파송을 받은 교회의 사도성의 의미는 또한 이 '파송'에도 있다. 모든 평신도는 동일한 사도적 전승을 받고,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를 일치의 초점으로 하는 4중적이다. 즉, 장로교의 직제는 말씀과 성례의 교역자인 목사에 게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토 베버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옳다.

이것은 그 어떤 일반적인 평등성이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의 평등성이어서 그것은 그 어떤 동일성(Identity)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통일성 속에서 4중성이요, 4중성 속에서 통일성이다.²⁾

6. <2000년대를 향한 교단발전 장기 계획>(1989년 제 74회 총회 때 채택)이 제시하는 5가지 미래사회의 특징에 대응하여, 우리는 만인제사장직론에 입각한 직제발굴을 어떻게 해야하나?

「2000년대를 향한 교단발전 장기 계획」(1989년 제 74회 총회 때 채택)은 5가지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본 교단의 역할을 제시한 바, 우리는 이같은 미래 사회에 대응하여 평신도들의 교역직을 발굴하고 개설해야 할 것이다. 평신도들의 다양한 교역직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사도성' 때문이기도 하다. 교회 자체,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속으로 파송받았다는 의미의 '사도성'이다.

1)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역할

후기 산업사회는 ...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보다는 복지, 문화, 여

2) Otto Weber, op. cit., pp.34-37.

가, 정보분야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사회이다. 오늘의 산업사회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원리로 하고, 표준화, 집중화, 집권화, 거대화등의 사회조직 원리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는 사회라면, 후기 산업사회는 사회적 합리성을 중심원리로 하고, 다원화, 분산화와 분권화, 소규모화 등의 새로운 사회조직 원리에 의해 재조직되어 가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후기 산업사회를 의식하고 후기 산업사회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을 찾아 내어 새로운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나갈 평신도 교역직들을 발굴하고 개설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문화 시대에서의 역할

... 지방 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정책을 주민 전체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자로, 행위적 실천자로, 중요한 감시감독자로서" 모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하는 바,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속에 '복음'이 깊숙히 파고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이미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평신도들을 발굴, 평신도 교역직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3) 민족 통일시대에서의 역할

... 성경을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변치않는 평화의 언약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같은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역사 속에서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민족 사회 속에서 민족통일의 과제는 ... 신앙의 차원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는 개교회들과 노회들과 총회 차원에서 평신도들을 참여시키는 통일 연구위원회와 통일기금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신도 교역직을 발굴해 내야 한다.

4) 세계선교 시대에서의 역할

오늘날 기독교 선교는 서구 중심의 선교시대에서 전교회가 세계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양상은 미래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선교는 전교회(the whole Church)의 과제요, 그 중심이 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하고, 각 개교회들과 노회 및 총회 차원에서 평신도들을 선교관련 위원회들과 기구들에 대폭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5)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역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해 파괴됨으로써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종들의 멸종의 위기, 지구의 사막화, 농토의 황폐화, 수질과 대기의 오염, 오존층의 파괴, 이상기온의 현상 등... 공해현상들이 죽음을 물고오고 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연구,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평신도들로 구성된 위원회나 기구를 각 개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 차원에 설치하고, 이들을 안수례받은 직제와 연계시켜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7. 우리는 우리의 직제를 가지고

어떻게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해야 하나?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협의회를 통한 친교'(conciliar fellowship)와 협의회를 통한 연합과 일치추구를 배워야 한다. 우리 장로교 통합측은 교단(총회)차원에서 타 장로교단들과 선교와 사회참여를 위한 협의기구(예컨대, 1999년 현재 29개 장로교단이 참여하는 한장연)를 구성하며, 나아가서 타 개신교파들과고는 물론, 가톨릭 교회들(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통교회)과도 선교와 사회참여를 위한 협의체들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파들의 대표들의 협의회를 통한 친교와 협의회를 통한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면서도, 평신도들과 여성들 및 청년들 차원에서도 교파들간의 협의회적 친교와 협의회를 통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집단과 집단의 만남에 있어서는 협의회적 친교가 필수적이다. 아마도 KNCC는 WCC의 헌장에 동의하는 한국의 모든 교파들을 포함하는 협의회적 친교의 장소로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협의기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한국의 모든 교파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 공교회적 협의기구에 KNCC가 들어와도 좋을 것이다.

칼빈의 4가지 직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 '목자장'(히 13:20; 요 10)이시요, '감독'(벧전 2:25: "...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이시요, 참 계시내용의 '교사'(신약에서 30회 정도)이시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까지 걸머지신 '봉사자'(= '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장로'(=목사=감독)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역' 혹은 '선교'를 통하여 성령역사로 인류와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화해시켰다고 하는 missio Dei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에큐메니칼 직제론을 확립해야겠다. 우리는 칼빈과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의 '교역' 개념으로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역' 개념에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3기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 운동이고, 둘째는 '삶과 봉사' (Life and Work, Church and Society 혹은 JPIC=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운동이며, 셋째는 '세계선교 운동' (CWME)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제(장로교의 직제론)는 첫 번째 운동에 상응한다. 그런데 1991년 제7차 호주의 캔버라 WCC 총회 이래로 '신앙과 직제'는 JPIC 및 CWME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는데, 우리는 JPIC를 세계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포함함으로써, missio Dei의 선교신학 위에 우리는 '에큐메니칼 교역신학' (an ecumenical theology of ministry)을 세워야 한다. 만인제사장직에 해당하는 교회의 '일반적 교역' (the general ministry)과 '특수교역직' (the special ministry) 모두가 JPIC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를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칼빈의 신학 전반과 그의 교회 본질론과 직제론이 지닌 약점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루카스 피셔는 칼빈 자신이 '선교적 과제'를 매우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면서 missio Dei 차원에서의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선교적 과업이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하는 주장은 오늘날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진리이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회중(개교회)은 선교적 개교회로 정의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한다. 따라서 장로들의 책임들 가운데는 교회의 선교적 증거에 있어서 개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포함된다.³⁾

8. 교회의 존재이유와 존재목적에 따른 교회의 직제는 어떠해야 하나?

1998년 하라레 제8차 WCC 총회는 그 동안 "신앙과 직제" 쪽에서 연구한 "교회의 본성과 목적"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이라고 하는 문서를 계속 연구과정 속에 있게 하였다. 신앙과 직제가 50년 이상이나 걸려

3) Lukas Vischer, op. cit., p.75.

서 만들어낸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Text가 그 동안 세계교회 일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 바, "교회의 본성과 목적"은 향후 BEM Text에 맞먹는 문서로서 완성될 것이 기대된다. 이 문서의 내용적인 특징은 교회의 본성과 교회의 목적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는 1991년부터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이것은 교회의 본질론이 기독교 윤리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운동이 언제부터 어떻게 근접하기 시작하였나를 간단히 살펴보아야 한다.

1961년 뉴델리 WCC 총회에서 지틀러(Sittler)가 골 1:20절에 근거한 주제 강연에서 "우주적 기독교론"을 제시한 이래, 1963년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가 제1분과에서("The Church in the Purpose of God")에서 교회의 사회참여와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한 이래, "신앙과 직제"는 "삶과 봉사"와 가까이 오기 시작하여, 1991년 서울 JPIC를 계기로 이 두 운동은 매우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신앙과 직제 제 5차 세계대회(Santiago de Compostela)의 전체 주제인 "신앙과 삶과 증거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향하여" (Towards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는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세례 성만찬 직제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는 복음전도와 missio Dei와 사회참여(JPIC)에 모두 동참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환언하면, 이 주제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로부터 뽑혀진 위원회가 작성한 "값비싼 일치" (Costly Unity)라고 하는 문서가 이 신앙과 직제 제5차 세계대회 문서에 포함된 이래, 1994년에 나온 "값비싼 참여" (Costly Commitment)와 1996년에 나온 "값비싼 순종" (Costly Obedience)은 모두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존재이유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않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 “교회의 본성과 목적”(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이 주장하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신학이 말하는 교회론이 교회의 목적 보다도 교회의 정체성과 그 사도적 본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아, 이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 문서는 신앙과 직제 전통에 입각하여 교회의 본질을 규명한 다음, 교회의 존재이유 혹은 교회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문서 전체를 지배하는 확신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따라서 교회는 인류와 나머지 모든 창조세계의 운명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화해와 치유와 혁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제자들이다. 따라서 교회적 사명의 온전성은 선포를 통한 증거와 정의, 평화, 창조세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에 달렸다...⁴⁾

오늘날 세계교회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미리맛봄이요, 그것의 징표요, 그것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도구로 본다. 이에 관하여는 개신교 뿐만 아니라, 제2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래,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창조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역사의 지평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비

4)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 A Stage on the way to a common statement, Faith and Order Paper No. 181, 1998, p.56.

전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듯이, 이같은 종말론적 비전이 없이 자체 안으로 움추려 드는 교회는 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

1. 우리는 이상에서 칼빈의 교회본질론에 입각한 직제론을 루터의 만인제사장직론과 관련하여 논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이 지향하는 교회론은 아무래도 교회의 사도적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섬김”(ministerium Verbi Dei)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치중하고 있다. 그도그럴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이같은 사도적 본질로부터 너무 빛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 신학이 주장하는 교회론이 교회의 선교와 사회참여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방만해지고 비본래적이 돼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반론 때문이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 이래로 그리고 제 2 바티칸 공의회 이래로, 교회론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방향지워져 있다 하겠다. 우리는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삶과 봉사(JPIC) 및 세계선교(CWME) 차원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16세기종교개혁 신학이 말하는 교회의 사도적 본질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헌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교회와 교회의 직제는 기본적으로 “ministerium Verbi Dei”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것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론은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더 지니게 되었다. 즉, 18-19세기 선교활동을 통해서 복음전도(Evangelism) 차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missio Dei와 세계선교 차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장차 교회의 머리시요, 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지상 사역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시고 실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둘이 아니요 하나이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실현하시는 과정에서 교회의 존재이유와 존재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목적과 분리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3. 우리 한국장로교는 개혁전통의 4중직을 교회의 목적에 정위시킴으로써, 교회가 교회 안으로 움추러드는 경향과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경향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만인제상직론을 복음전도와 JPIC와 missio Dei를 위해서 크게 활용함으로써, 장로교 교직체제의 경직화를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혁전통의 4중직이 ministerium Verbi Dei 차원에서 등거리에 있으면서, 그 중 목사가 통일성의 원리요, 책임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직제문제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척교회의 경우, 직분을 가진 교인들은 물론,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목적과 존재이유에 관한 교육을 잘 받을 때, 교회 전체가 비로소 직분간의 대립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울은 교회분열의 상황에 있는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6-9). 이 말씀은 개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보편교회 차원에서도 타당하다.



여성 입장에서 본 교회의 지도력 갈등과 치유

김화자 목사 · 여교역자회 안식관

들어가는 말

여성 지도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여성안수문제가 통과된 이후 올해로 121명의 여목사와 43명의 여장로가 탄생되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여성지도력의 시험 무대가 바야흐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여성이 지도자로서 훈련받지 못하고 기독교 전래 이래 오직 섬기기만 하던 관성으로 인해 여성지도력에 대해 비판할만한 구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부른 비판을 하기 전에 우리 풍토는 여성지도력 발휘에 얼마나 호의적이었나 하는 것부터 돌아보아야 한다고 본다. 여성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별로 제공하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소수의 여성목사와 여성장로들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보다 긍정적으로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추동세력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여성지도력이 어떻게 소외되어 왔으며 그러한 양상들을 치유할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의 소외와 초기의 여성 지도력

한 40대 집사는 (남성)목회자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